

제 3차 동북아연구회 결과 보고

I. 개요

1. 주제: 동북아 다자협력의 향후 과제와 정책방향
2. 개최일시 및 시간: 2007-11-30 (5:15pm~7:00pm)
3. 개최장소 KIEP 9층회의실
4. 발표형태: 라운드테이블 패널
5. 발표자 :
박대식 전경련 상무
장형수 한양대학교 교수
이동휘 외교안보연구원 교수

II. 주요 논의 내용

1. 토론 내용

☐ 이동휘 위원

- 지역다자협력의 유용성이 증가하고 있음. 전략적 복잡성, 전략적, 경쟁, 전략적 헤징이 요구됨에 따라 각국들은 다자협력을 저극 추진하고 있음.
- 그 특징을 살펴보면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강대국 간의 협의가 증대되고 있으며 양자관계의 확대, 경제와 안보의 연계 추세가 두드러 지고 있음.
- 향후 동북아 세력균형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경제와 안보의 시너지 증대방안, 다자협력의 운용체계 구축, 중요이슈의 발굴, 공동체 인식의 함양방안 등이 연구되어야 함.

☐ 장형수 위원

- o 북핵 6자회담 추가 합의,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, 동북아다자안보협력기구 출범 등이 동북아 다자협력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

- 조선신보(2007.11.26): "(북핵) 2단계 조치가 이행되면 다음 단계의 행동을 일으키는 2008년에는 그야말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의 격동이 예상된다"며 "모든 참가국들이 자기들이 지닌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을 다그쳐 가야할 시점"이라고 덧붙였다.
- o 북한의 국제사회 진입과 새로운 플레이어의 등장
 - 기존 동북아 협력 구도의 변화 가능
 - 북한은 다자협력 분야의 주체이자 객체
- o 변화되는 동북아 정치경제적 환경에서 기존의 다자협력 논의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?
- o 새로운 다자협력 대안의 제시 내지는 기존 다자협력 논의를 폐기하고 양자간 협력에 중점을 두는 것이 결론으로 나올 수도 있음.
- o 동북아 다자협력의 정치경제
- o 동북아 개발협력
 - 동북아지역 개발 자원 조달
 - 동북아개발은행, 동북아투자공사 등
 - 한중일 3국간 개발은행 협의체의 미래
 - 두만강개발계획(TRADP) & GTI(Greater Tumen Initiative)
 - 지역개발협력사업의 국제 사례 분석
 - 북한의 국제사회 진입으로 진전 가능성?
 - GTI와 국제금융기구와의 연계 가능성
- o 동북아 철도협력
 - 개성-신의주 철도 개보수
 - TSR, TCR과의 연결시 다양한 국제협력 과제 발생
통과료 문제, 사고처리 문제, 국경통과 문제 등
 - OJSD 가입 문제(24개국 찬성, 북한은 유보)
 - UN ESCAP 활용방안
 - 다자간 철도협약체, 자원조달 컨소시엄 구성
 - TSR-TKR 연결 철도: 북러 채무문제 해결, 철도이용료 책정 문제, 최소

이용물동량 보장 문제, 북한의 입장

- 북한의 국제사회 진입으로 진전 가능성?

○ 동북아 에너지협력

- 동시베리아 및 극동러시아 원유, 가스, 전력 등
- 에너지자원 공동개발, 수송 및 이용, 전력망 연계
-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국제협업체 구성(일본과 중국 참여 중요)
- 기존 협의메커니즘에 대한 비판적 검토
- 한중일 에너지 수요자간 경쟁구도
- 북한 통과 파이프라인, 송전망 사업
- 북핵 6자회담 결과로 경수로 제공하는 경우, 송배전망 건설 등
- 북한의 국제사회 진입으로 진전 가능성?

○ 동북아 환경협력

- 황사, 황해오염방지, 기후변화협약
- 동북아환경협력회의(NEACEC), 동북아환경고위급회의(NEASPEC),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(NOWPAP), 아태환경회의 등 에너지협력체보다 활발
- 북한의 국제사회 진입으로 진전 가능성
- 북한 환경문제의 해결에 다자간 협력 필요

□ 박대식 위원

○ 한중일 3국간에는 기술표준, 물류표준, 유통 분야에서 무역장벽이 기업간 거래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. 무역장벽을 개선함으로써 한중일 3국간 비즈니스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.

- 3국은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3국 무류장관회의, 동북아표준협력회의, 크레인 국제표준화 대응을 위한 3국협력, 전자태그, 이력추적분야에서의 협력존의를 추진중임.

2. 논의 내용

○ 변화될 환경요인은 무엇인가?

- 이동휘: 북한과의 화해를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의 진전, 한중일 3국

정상회의 별도개최로 인한 3국간 협력의 모멘텀 증가, 미국행정부 교체로 인한 요인이 있음.

- 장형수: 보수정권이 한구에서 집권해도 남북경협 진전의 추세는 지속될 것임.

- 박제훈: 북한의 체제 전환과정에서 돌이킬수 없는 POINT(TRESHHOLD)가 존재함.

- 향후 연구과제: 6자회담의 동북아 다자협력체제로의 발전방안, 한중일 정상회담의 운용방안, 동북아 국제정치환경의 변화, 개발금융협력, 철도협력, 에너지 협력, 동북아 3국의 FTA전략과 동북아지역 FTA의 가능성